



# 책 읽고 역사 탐방... 새봄, 도서관의 즐거움

### 지역 도서관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다채 4·3 소설 쓴 한강 작가 테마에 연령별 마련

새봄을 맞아 제주 지역 도서관들이 분주하다. 독서의 즐거움을 전하고 문화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어서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도서관의 즐거움을 들여다본다.

#### 『제주 책』에 더 가까이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이달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초등 3~5학년 대상으로 한 어린이 향토 독서 문화프로그램 '책집 제주, 제주섬 보물도감'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제주 책을 중심으로 지역 작가와 함께 제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제주 문화와 자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

신숙 시인과 클로이 일러스트레이터가 함께한다. 제주 문화와 제주의 멸종위기 동·식물·새를 사진과 도감으로 연결해 독후활동을 하고 미술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도서관은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책 꾸러미'를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선정된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토론, 책 놀이 등 독후활동을 한 후 이를 기록해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 참가 대상은 초등 1~2학년·3~4학년·5~6학년, 청소년(중·고등학생), 성인이다.

제남도서관은 이달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55세 이상 시니어 12명을 대상으로 '2025 시니어 북클럽'을 운영한다. 송해성 독서지도

사의 지도로 매달 1권씩 총 9권의 세계 문학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으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눈다.

#### 『곳곳서 역사·문화 탐방』

동녕도서관은 이달 29일 '2025년 봄 마음에서 다시 피는 동백꽃, 4·3 소설' 탐방을 운영한다. 도서관과 지역 주민이 함께 제주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다.

전영미 4·3 해설사와 함께 제주 동부 지역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와 남부지역 중 한강 작가의 제주 4·3을 소재로 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배경으로 추측되는 표선면 가시리 일대 4·3유적지를 4시간 동안 탐방한다.

한강 작가 도서 전시도 이달부터 연중 개최된다. 제주 한라도서관이 마련한 이번 전시는 도서관이 소장한 한강 작가의 도서 중 일부를 활

용해 도내 7개 순회문고에서 진행된다. 이달에는 제주도립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에서 17층·34권을 전시한다.

한수포도서관은 이달 22일 '2025 우리 가족 제주 역사, 문화 탐방'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문영택 사단법인 질토레비 이사장과 함께 명월성, 옹포천, 옹포포구 등지를 돌아보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갖는다.

송악도서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금요일 창작 작업실에서 '색과 빛의 예술, 아크릴화 교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정주희, 강신혁 작가가 강사로 나서 제주 바다와 유채꽃밭 등 제주를 소재로 한 그림과 명화를 재해석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다시보는 추억 명작... '명필름 특별전'

### 14~20일 롯데시네마 연동관 8명 대표 감독 초기작 상영

사단법인 제주영화제는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롯데시네마 제주연동관에서 '명필름 특별전'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영화사랑 한국영화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8명의 감독의 초기작을 상영한다. 장윤현 감독의 '접속', 김지운 감독의 '조용한 가족', 정지우 감독의 '해피엔드', 임순례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정지영 감독의 '부러진 화살', 오성운 감독의 '마당을 나온 암탉',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김현석 감독의 '아이 캔 스피크'다. 영화사 명필름이 제작한 영화들이다.

각 영화 상영 후 씨네토르크도 마련된다. 명필름 이은 대표와 정지영 감독, 김동현 문학평론가 등이



장윤현 감독의 영화 '접속'.

참여한다. 특별전은 초청 형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제주영화제는 잔여석이 있을 시 이메일(jeffu@hanmail.net) 접수 신청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개별 연락해 상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메일 접수를 할 때는 영화명, 이름, 나이,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 박소정기자



이욱문의 '메밀꽃 피고 진 자리'.



박광진의 '자연의 소리 2002'.

# 반갑고 그리운 풍경... '제주의 색' 전

### 제주갤러리 이욱문 작가 전시

반갑고 그리운 제주의 풍경. 제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정서가 묻어났다.

이욱문 작가의 개인전 '제주의 색'이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인사아트센터 B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담은 유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제주갤러리 공모 선정 작가인 이욱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라

며 제주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수십 년간 창작해 온 화가다. 작가는 제주의 대표 명소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을 배경으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자연의 색조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그의 작품에서 제주는 단순한 고향을 넘어 애정과 감정이 담긴 특별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제주갤러리 측은 "제주 자연의 풍경과 함께 제주의 색감과 정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 반복되는 계절이 전하는 자연의 소리

### 박광진 '자연의 울림' 전

반복되는 계절이 전하는 자연의 소리를 익숙한 듯 다양하게 그려낸 65년 전 제주를 처음 찾은 이후 제주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그려온 박광진 화백에게 제주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990년대 중반 발표한 '자연의 소리' 연작에서는 기존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자연의 변화와 그 속에 담긴 감성을 추상적 요소와 결합해 표현했다.

제주시 환경면에 있는 제주특별

자치도 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열리고 있는 박광진 화백의 상설전 '박광진 : 자연의 울림'에서는 오랜 시간 자연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담아온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기증한 149점 중 그가 그린 사실적인 풍경화와 '자연의 소리' 연작 등 19점을 선보인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현대미술관 누리집(www.jeju.go.kr/jeju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소정기자

# '자연과 즉흥의 만남' 제주국제즉흥춤축제

### 5월 12~15일 돌문화공원 참가 무용가·단체 공모

제10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가 오는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열린다.

12일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제주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커뮤니티 즉흥 공연, 길 위의 즉흥 공연, 국제 릴레이 즉흥 공연, 관계과 함께하는 즉흥 공연, 라벨의 불레로가 즉흥과

만나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중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즉흥 공연과 커뮤니티 즉흥 공연에 참여할 무용가와 단체를 공모한다. 야외에서 펼쳐지는 각 공연은 8분 내외의 공연으로 구성하면 된다.

자연환경과 즉흥의 만남에 관심 있는 무용가와 단체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16일까지 축제 홈페이지(www.ipap.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ipapi@hanmail.net)로 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제주문화회관 정기대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하반기 제주문화회관 정기대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관 대상은 828석 규모의 대극장과 100여석 규모의 소극장이다. 대관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박소정기자

대관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으며 도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연이어야 한다.

대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누리집(www.jeju.go.kr/jejuculture)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 씨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 '씨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씨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부터 접순 나눔(고점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트로 판매를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27 농가 · 업체 : 3개 업체

##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감귤묘목·포드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드묘목 생종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 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감귤 신품종 분양

### 2025년 최고 품종안내

만감류(기술원 보급종)  
우리향, 달콤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리향,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아마나스, 황금향, 탐나는 봉, 카라향

온주  
유라조생, 하례조생, 오히라베니(궁천번이치), 궁천, 고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솔포 방향 300M로도로번)

종자업 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종자업 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 하례조생

특징  
조생은주계통이며  
궁천조생보다 일주일 빨리 수확함.  
당도는 궁천보다 뛰어난.

그 외 모든 품종 보유

##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